



라메세움 · 사진: Marc Ryckaert / Wikimedia Commons, CC BY 3.0

제 19 왕 조

라메세움

람세스 2세의 백만 년의 집

왜 중요한가

람세스 2세의 장제전으로, 한때 '백만 년의 집'으로 알려졌으며 파라오의 이름을 영원히 불멸화하려는 목적으로 지어졌습니다. 한때 천 톤이 넘는 무게였으나 지진과 세월에 의해 쓰러진 람세스 2세의 거상 등 이집트에서 가장 큰 왕실 조각상 중 하나의 잔해를 보관하고 있으며, 비슷한 조각상의 부서진 머리는 런던의 대영박물관으로 옮겨져 그곳에서 '젊은 멘논'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유적지에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'생명의 집'이라 부르던 도서관과, 오늘날까지도 뚜렷이 남아있는 거대한 아치형 곡물 창고도 있습니다. 프랑스-이집트 합동 고고학 발굴단이 현재도 이 유적지에서 작업을 계속하며 원래 배치에 대한 새로운 세부사항을 정기적으로 발견하고 있습니다.

1,000 t+

쓰러진 거상의 무게

1818

셀리의 시 「오지만디아스」

볼트

아직 서 있는 흙벽돌 곡물 창고

‘생명의 집’

신전 도서관

방문 준비

운영 시간

매일 06:00 - 17:00

입장권외국인 성인 220 이집트파운드
드
학생 110 이집트파운드 (유효한 학생증)**사진**

휴대폰 촬영 무료

소요 시간

약 1시간

추천 시간

늦은 오후, 부드러운 빛과 적은 방문객

위치

서안, 멘논의 거상 근처

요금과 운영 시간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. 매표소에서 꼭 확인하세요. 대부분의 매표소는 카드 결제만 가능합니다.



이 순서로 둘러보세요

라메세움 관람 동선

더 큰 이야기

쓰러진 이 조각상은 영국 시인 퍼시 셸리에게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시간 앞에서는 초라해진다는 성찰을 담은 유명한 시 '오지만디아스'를 쓰도록 영감을 주었으며, 고대 이집트를 다룬 서양 문학 작품 중 가장 잘 알려진 것 중 하나입니다.

1 탐문과 전투 장면

람세스 2세가 들려주는 카데시 전투 이야기.

2 쓰러진 거상

람세스 2세 거대 조각상의 조각들 — 셸리 시 속의 '오지만디아스'.

3 제2정원

오시리스 모습의 왕 조각상이 붙은 기둥들.

4 열주실

기둥의 숲, 그리고 신들 앞에 선 왕의 장면.

5 곡물 창고

신전 뒤편의 거대한 흙벽돌 볼트 — 3,000년 동안 서 있습니다.

알아두면 좋은 점

- 다른 신전보다 작고 덜 붐비어, 인근 뱀논의 거상을 짧게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.
- 몇 분 거리의 뱀논의 거상과 함께 둘러보세요.
- 거의 붐비지 않아 사진 찍기 좋습니다.



전체 이야기 듣기

스캔하면 Luxor Guide 오디오

투어 — 11개 언어, 오프라인 지원

현지 가이드와 함께 둘러보세요

원하는 언어의 전문 이집트학 가이드, 기사 포함 차량, 그리고 열기구·펠루카·나일 크루즈까지. 메시지 주시면 빠르게 답해 드립니다.

WhatsApp +20 100 050 6066

info@luxor-guide.com

출처: Luxor Guide 해설 원고 — 라메세움; 이집트 관광유물부 입장료 정보 (2026);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— 고대 테베와 네크로폴리스 (1979). **사진:** Marc Ryckaert (MJJR), CC BY 3.0, via Wikimedia Commons.